

민중적 웃음과 지성적 냉소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
웃음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비판적 인식

장수익 | 문학평론가 · 한남대 국문과 교수

우리 근현대 문학에 나타난 웃음의 형태는 '민중적 웃음'과 '지성적 냉소'다.

민중적 웃음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조롱이며, 그 속에는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순간적이거나 초월해 보려는 소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지성적 웃음은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냉소'며 바뀌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웃음이다.

웃음은 상황의 경계선에서 발생한다. 한 발은 웃기는 상황 속에, 다른 한 발은 그 상황 밖에 걸치고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상황 속에만 있는 이는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기에, 상황 밖에만 있는 이는 그 상황을 아예 모르기에 둘 다 웃을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렇게 자신을 비웃는 이는 순간적으로 자신에게서 떨어져나와 경계선에서 서서 원래 자리에 남아 있는 한심한 자신을 보면서 웃는 것이다.

웃음의 두가지 양식

이런 웃음의 경계선적인 특징을 볼 때, 웃음의 진정한 반대말은 울음이 아니라 진지함 또는 초월함이다. 이같은 상황을 보들레르의 말을 빌어 표현한다면, "진지한 또는 초월한 현자는 웃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결코 현자가 아닌 한계 있는 사람들만 웃는 것이며, 따라서 웃음은 세속적이고 민중적이다. 이 세속인 또는 민중은 자신들이 처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넘어설 힘이 없다. 대신 이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현실을 넘어서려 한다. 바흐친이 설득력 있게 설명했듯, 비록 실제로는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웃음의 공간에서만만큼은 민중은 자신들의 현실을 순간적으로 벗어나 비판하고 조롱하며, 그 현실을 견뎌내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한계 있는' 진지함과 초월의 민중적 방식이 웃음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이고 민중적인 웃음과는 무언가 다른 미학적 특징이 있는 웃음이 현대에 들어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특징이란 바로 지성이다. 이때의 지성이란 보들레르가 말한 현자와는 맥락이 좀 다르다. 이 세상을 두루 꿰뚫고 있는 것은 현자와 같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나아질 가능성이란 눈곱만큼도 없다는

비판적 인식이 지성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성은 민중과 다를 바 없이 주어진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 그때 지성은 경계선으로 옮겨가면서 웃는다. 이 세상을 두루 꿰뚫고도 바꾸지는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과, 결코 바뀌지 않는 세상을 향한 냉소를 말이다.

지배층을 우롱하는 민중적 웃음

우리 한국 현대문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웃음은 바로 이 두 웃음일 것이다. 민중적 웃음과 지성적 냉소가 그것인데, 이제부터는 이 두 웃음이 나타나는 양상을 근현대 소설 몇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민중적 웃음이 공격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지하듯이 이 소설에서 판소리 광대를 흉내내는 서술자는 윤직원으로 대표되는 당시 토착 부르주아의 천민적, 매관적 근성을 폭로한다. 현실에서는 대단한 금력과 권위를 가진 윤직원 영감을 소설 공간 속으로 끌고 들어와 그 권위를 벗겨내고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서술자가 윤직원이 속한 상황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직원의 속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상황 속에 있지만, 윤직원에게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황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웃기는 대상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서술자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절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비록 소설 공간에서는 윤직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술자와 독자는 그렇게 말도 안되는 인물이 실제 세상에서는 엄청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민중적



한국소설에서 웃음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권력과 지배계급을 풍자하고 회화화하는 '민중적 웃음'과 자신과 현실을 자조하고 아우르는 '지식인적 냉소'가 그것이다. 사진은 채만식, 최인훈, 성석제.

인 웃음 속에는 그토록 절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웃지도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가상적이거나 움직인 영감 같은 이를 공격하고 비판하지도 못한다면, 민중의 삶에는 암담함과 허무만 남을 것이다.

근래의 소설 가운데 민중적 웃음과 연관된 대표적인 경우는 성석제의 작품이다. 그가 즐겨 쓴 소재는 개발독재 시절 지방의 한 소읍에서 치외법권적인 행패를 부렸던 '전설적인' 깡패 이야기다. 이 전설적 깡패에 대해 민중은 양면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나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골칫덩이로 낙인찍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그놈은 대단했어'라고 신화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은 깡패의 양면성에서 비롯한다. 민중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지배층과 같지만, 그럼에도 민중으로서의 연감생심 어거불 수도 없는 기존 질서에 맨몸 하나로 대항하는 것이 깡패인 까닭이다. 달리 말해 민중은 현실 부정 욕구를 깡패에 투사해 신화화하는 셈이다.

“똥간은 서장의 넥타이를 잡고 멧돼지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서장은 목이 졸려 죽지 않으려면 충직한 사냥개처럼 똥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뒤를 은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랐고 경찰들이 뒤를 이었고 읍민들이 뒤를 따랐다. 따라서 역전 파출소에서 기차역까지 수백 명이 달려서 이동하는 은척읍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었다.”(성석제, <조동관 약전>,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민음사, 1997, 26쪽)

이럴 때 민중은 감히 지배층에 대항했던 '전설적' 깡패 이야기—'보통' 깡패는 지배층을 흉내내면서 또 다른 지배자로 나서려는 인물이—를 입에 담으면서 깡패와 지배층 모두를 회

화화한다. 그리고 그들이 부렸던 현실적 위세, 특히 지배층의 위세를 이야기 공간에서만큼은 부정한다. 성석제 소설의 서술자가 가지는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에 인용된, 전설적 깡패였던 똥간(조동관)이 경찰서장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그 적절한 예인데, '멧돼지'와 '충직한 사냥개'라는 비유는 이 소설의 서술자가 민중과 같은 입장에서 깡패와 지배층 양자에게 모두 부정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자신에 대한 풍자, 현실에 대한 아우

이제 지성적인 냉소가 나타나는 몇 작품을 살펴보자. 일제 시대의 경우, 채만식의 작품에서 이런 웃음을 잘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레디메이드 인생>인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 P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써볼 도리도 없이 실직 상태에서 가난 속을 헤맨다. 기껏 구직하러 간 곳에서 농촌 운동이나 하라는 권유를 들은 P의 모습은, 이 작품의 한구절을 빌어 표현한다면, “초상집의 주인없는 개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P의 정황에 대해 작가는 “일천 구백 삼십 사년의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 그것은 P가 굶어죽지 아니한 것이다”로 요약해 표현한다. 이런 P가 쓴 웃음을 지으며 어린 아들을 희망 없는 교육 대신 인쇄소 직공으로 취직시키는 장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현실에 대한 아우라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구보씨는 소설을 다시 쓰고 있다. 다시 소설가 구보씨가 된 것이다. 그건 왜냐고 묻는다면, 글썸, 다시, 생리가 시작되었으므로, 하고 대답할 수밖에. 그러면 또 물을 것이다. 오른팔 관절이 빠진 구보씨가, 턱도 돌아간 구보씨가 어떻게 그날 이후 바로 소설을 쓸 수가 있지요,

라고. 그건 왜냐하면, 원래 구보씨는 왼손잡이기 때문이다.”(주인석,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불타게 한다>, 《검은 상처의 블루스》, 문학과지성사, 1995, 172쪽)

근래 소설 가운데 냉소적 웃음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으로 주인석의 소설을 들 수 있다. 그의 연작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가 그것인데, 이 연작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념이 쇠퇴한 이후 소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석이 도달한 답은 부정적이다. '소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설가는 '생리'처럼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면, 이제 과연 어떤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주인석이 택하는 소설 쓰기의 전략은 웃음과 위트다. 곧 그는 웃음과 위트의 가벼움으로 좌절의 무게를 이기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앞의 인용에 나오는 '왼손으로 글쓰기'다. 이런 글쓰기가 변치 않는 세상에 대한 지성의 무능력함을 뒤집으려는 역설적인 시도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제까지 우리 근현대 소설 몇 작품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을 살펴봤다. 이밖에도 웃음과 관련지어 논할 수 있는 작가들을 든다면, 민중적 웃음을 드러낸 경우로는 김유정을 비롯해 박영준, 이문구, 최일남, 방영웅, 구효서 등이 있고 냉소적 웃음과 연관된 경우는 이상, 손창섭, 김성한, 김원우, 은희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이 두 유형과는 다른 웃음을 드러낸 예외적인 경우로 최인훈이 있다. 《웃음소리》에서 그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자살한 연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웃음소리' 하나로 아득하면서도 가슴 쓰리게 드러낸 바 있다.●